

'장수의 고장' 순창군, 노화연구원 유치 나서

꾸준한 노화 연구·데이터 구축·연구기관 준비 설립 최적지 郡,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방문 당위성 설득 총력 기울여

'장수의 고장' 순창군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화연구 컨트론타워인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나섰다.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수년 동안 건강한 노화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왔고 노화 고령사회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에따라 관련 연구기관이 많아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농생명 연구·개발 특구인 전북도의 발전 정책성과도 잘 부합해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군은 중앙 관련 부처와 기획재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정치권과도 공감대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가 1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립노화연구원의 순창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급속한 고령사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노화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순창군은 최소 200억~400억 규모의 사업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곳에서는 노화 기초 연구·개발 체계 구축과 노화 관련 인력양성·교육, 국내외 노화 관련 기관 협력기반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건강한 노화에 대해 연구하고 노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생산적 노화에 대



순창군 건강 장수 사업소.

<순창군 제공>

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치가 나선 만큼 전방위적 네트워크가 필

요하다"며 "전북도와 함께 관련 부처는 물론 기재부, 정치권, 학계 등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정영민기자 jyg@kwangju.co.kr



11일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숲체험 예정지에서 김재현 산림청장과 조재운 나주시 부시장 등이 기공을 알리는 시삽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 금성산에 국립숲체험원 조성

200억원 투입...2020년 완공

유아숲체험원·숲 속의 집 등

나주 금성산 자락에 맞춤형 산림복지와 교육·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전문 시설이 들어선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1일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현지에서 김재현 산림청장, 조재운 나주시 부시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립나주숲체험원 기공식을 했다.

나주숲체험원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산림체험 교육장 역할을 한다.

숲체험원은 녹색자금 200억원을 들여 2만1700여㎡의 부지에 건축면적 3천921㎡,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2020년 6월 완공된다.

주요 시설은 교육동을 비롯해 유아숲 체험원, 숲속의집, 다목적강의실, 방문자센터 등이다.

교육동은 숲·나무 등과 관련한 각종 회의, 세미나, 전시회, 관련 시민단체 교류 장소 등으로 활용한다.

또 주 중에는 청·장년층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복지 차원에서 숙박시설로 제공한다.

휴양시설로 나무집·숲 속의 집·산림문화 휴양관·숲 속 쉼터·하늘 숲길·숲 속 교실·다모임 암벽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2015년 6월, 대상지가 확정됐으나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자리걸음을 해왔으며 최근 사업 발주와 업체 선정에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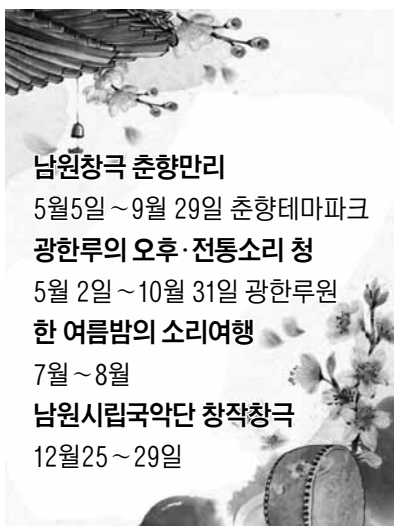
진흥원은 현재 국내 최대 산림복지단지인 국립산림복지유원을 비롯해 장성과 강원 횡성 등 3곳에 국립숲체험원을 조성, 운영 중이다.

대관령과 양평에는 국립 치유의숲을, 세종시에는 파랑새유아숲체험원이 조성돼 있다.

나주 숲체험원과 함께 올해 대전과 춘천에 유아와 산림레포츠 전문 숲체험원이 들어선다.

유영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나주숲체험원은 장성숲체험원과 함께 사부군역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남원창극 춘향만리

5월5일~9월 29일 춘향테마파크

광한루의 오후·전통소리 청

5월 2일~10월 31일 광한루원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7월~8월

남원시립국악단 창작창극

12월25~29일

국악 공연 풍성한 남원 얼씨구 좋다~

'춘향만리' '...전통소리 청' 등 공연·버스킹·체험교실 다양

'국악의 고장' 남원시가 관광객을 위해 내달부터 연중 풍성한 국악공연을 연다.

먼저 남원시립국악단이 판소리 춘향가의 눈대목을 들려주는 '남원창극 춘향만리<사신>'가 다음달 5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춘향테마파크에서 2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춘향가의 탄생 배경에 기반한 상상력을 더한 작품으로, 전북도의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에 6년 연속 선정된 남원시립국악단의 대표 공연이다.

그동안 '광한루연가'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졌으나 올해부터 이름과 형식을 새롭게 바꿨다.

판소리 따라 배우기, 퓨전국악 버스킹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판소리, 민요, 병창, 전통무용을 즐길 수 있는 '광한루의 오후·전통소리 청'도 다음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한루원에서 펼쳐진다.

7~8월 휴식기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관객을 찾아가는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을 마련한다.

국악, 농악, 대중가요, 클래식, 성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소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정유재란과 남원 도공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창극을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선보인다.

국악의 성지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기악합주, 무용,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등을 즐길 수 있는 '홍겨운 우리가락'이 진행되며 '청소년을 위한 국악교실',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국악공연'도 마련된다.

남원시립국악단장 강복대 남원부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국악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익산시, 시민이 디자인한다

'라이브 고도 미디어 월' 공모

익산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자체 브랜드화 하기 위한 '라이브 고도 미디어 월' 시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화적자 해소를 위해 진행된다.

공모전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정보 등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익산시의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익산문화재단이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익산역 광장에 영상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

지원지역은 익산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자, 익산에서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 부모가 익산시민인 자 등으로 1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공모전은 익산의 역사·문화를 상징하고 대표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발굴하고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펜화, 수채화, 포스터화, 아크릴화, 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다.

접수는 오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익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공모전은 최우수상 300만원 등 총상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문의 063-853-6780. /익산=유영민기자 yjy@kwangju.co.kr

군산해수청, 선박 항해 위협하는 암초 '송대여' 제거

항로 표시시설 확충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 운항을 위협하는 고장군 해리면 광승리 서쪽 해상 암초 '송대여'를 제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송대여는 폭 5m, 높이 0.7m의 썰대 모양의 간출암으로 만조나 시계가 좋지 않을 때 노출 부분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산해수청은 이 암초를 7월까지 없애 구시포항과 동호항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암초 제거로 선박 항해에 위협을 주지 않는 수심을 확보하겠다"며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암초 제거, 항로 표시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 3136㎡ 태장광적합 5700만원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 원도 약산면 특암리 바다집 2481㎡ 안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주택 · 원룸 · 아파트

- 전원주택 함평 해보면 대지 966㎡ 집 79㎡ 테마실에서 차도5분 1억5500
- 월산동 소망도로집 2층 주택 전체공실 토지 150㎡ 1억7천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신가주택 1억4500

투자 · 매도 · 교환

- 수목장(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죽을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덕남동 전대병원부근 빌라동 적합 873㎡ 단독주택도 좋음 7억5천
- 쌍촌동 소망도 대지 118㎡ 신가주택 적합 1억6천
- 태안광적합 고창군 공음면 64351㎡ 1억3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앞 664㎡ 2층주택 사할적합 2억5천
- 나주 남평사내 상업지 2919㎡ 개발적합 공시가 8억8천 매도39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적합 1억7300
- 고흥 나로도로부근 판선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동시장 건너 재개발지역 대로변 대지 217㎡ 주택 3억2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충창로 5가 도로변 상업지 490㎡ 신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양동시장 대로변 땅 2902㎡ 주상복합개발적합 은행 30억 매도 67억
- 충창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북구 문흥동 대지 171㎡ 5층 신가주택 491㎡ 임대생활적합 7억6천
-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땅 516㎡ 4층건물 790㎡ 공사가6억 매도 16억
- 순천1번 판선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8 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중음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야 "금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자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80만원~~ - 금매 8만원 (일시불 완불조건)
- 문의. 010-3605-5000

최고급 전원주택(별장)

▶ 정남진 장흥, 환상적인 해변의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 리조트, 선착장이 어울린 최고급 유럽풍 주택

토지 4,900㎡ / 건물 238㎡ → 매가 7억 2천

캐나다산 수입원목(100%) 목조건물로 최고급 수입 원자재 시공, 조망권 최고! 광주에서 45분!

◎ 남해안에 더이상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투자만점 계 획 관 리 지 역

▶ 화순 도곡면 원화리 도곡온천 인근 계획관리지역 전 및 임야 29,198㎡ → 매가 9억 8천 투자최고!!

H. 010-4226-7722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식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튀김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광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5(창의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6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